

일명 ‘청와대 불상’의 내력과 의미

임 영 애*

- I. 머리말
- II. 일명 ‘청와대 불상’의 현상과 내력
- III. ‘청와대 불상’의 삼단사각대좌
- IV. 맺음말

I. 머리말

청와대 안에는 ‘미남불’이라 불리는 석불좌상이 있다.¹ 현재 광배도 없고, 대좌도 일부를 잃었지만, 불신은 거의 손상된 곳 없이 완전하다. 신라 불상 가운데 얼굴이 이렇게 온전하게 남아있는 예가 드물고, 석굴암 본존상을 축소해 놓은 것처럼 어깨가 당당하여 이미 1934년부터 ‘미남불’

* 경주대학교

** 이 글을 작성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문화재청의 황권순 과장님, 황정연 선생님을 비롯하여 국립춘천박물관 김상태 관장님, 강삼혜 선생님, 그리고 용인대 배재호 교수님,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김동하 선생께 이 글을 빌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¹ 1974년 1월 10일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됐다. 당시 지정고시 문화재목록에 ‘석조여래좌상’으로만 표기되어 있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청와대 불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이라 불렸었다.² 잘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이보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불상이 일제강점기인 1912-1913년 무렵 경주에서 서울로 옮겨와 현재 청와대 관저 뒤쪽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은 이 불좌상이 어떤 연유로 청와대에 위치하게 되었으며, 원래 경주의 어디에 봉안되어 있던 것인지, 그리고 이 불상의 제작 시기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또 이 불상은 통일신라 불상 가운데 그 예가 많지 않은 삼단사각대좌를 지녔다. 이전까지 유행했던 대좌는 '삼단팔각연화대좌'였다. '삼단팔각대좌'는 사각의 지대석 위에 팔각의 하대와 중대, 그리고 원형의 상대로 이루어진 대좌를 말하는데, 통일기 신라에 가장 보편적으로 쓰인 대좌 형식이다.³ 그런데 청와대 불좌상은 통상적인 삼단팔각연화대좌가 아니라 상·중·하대가 모두 사각으로 이뤄진 '삼단사각대좌'라는 점에서 이전의 예들과 다르다. 삼단사각대좌는 통상 고려시대 전기에 유행했던 대좌 형식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 전기의 꽤 많은 예가 남아있지만, 그 시작은 통일기 신라 하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흥미롭게도 삼단사각대좌를 지닌 불좌상 가운데 양식적으로 가장 이른 예는 경주 남산에 남아있다. 대표적인 예로 남산 약수계 석불좌상과 용장계 절골 약사불좌상, 양조암곡 제1사지의 석불좌상 등 경주 남산에만 3구가 있고, 대좌만 남아있는 경우도 국립경주박물관과 경주역 앞의 방형 하대석을 비롯하여 몇 예가 있다. 고려시대로 접어들면 장곡사 상대웅전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달성 유가사 석조불좌상, 함양 교산리 석조불좌상, 여주 고달사지 대좌 등을 비롯하여 더 많은 예가 제작된다. 이 글에서는 일명 청와대 불상의 내력과 함께 삼단사각대좌를 갖춘 청와대 불상의 제작 시기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II. 일명 '청와대 불상'의 현상과 내력

'청와대 석불좌상'은 청와대 관저 뒤쪽 녹지원의 보호각안에 봉안되어 있다(도 1).⁴ 현재 광배를 잃었고, 대좌는 상대만 남아있다(도 2). 이를 제외하고 불신은 손상된 곳이 거의 없이 잘 남아있다. 특히 석불에서 가장 잘 깨어지는 부분이 코, 귀불, 손가락 끝인데, 이 상은 코끝과 양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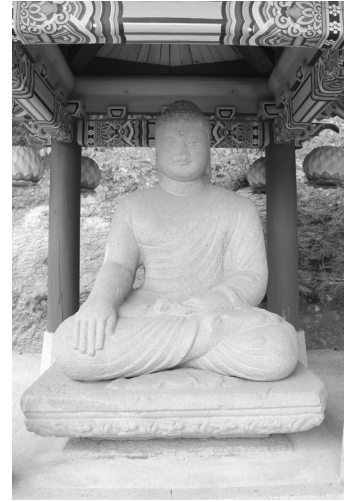
² 『매일신보』 1934년 3월 29일자 기사 “석가여래상의 미남석불”

³ 삼단팔각연화대좌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林玲愛, 「中國の三段八角台座に秘められた象徴－崑崙山, 須彌山, 三段台座－」, 『佛教藝術』 336(2014), pp. 61-78; 임영애, 「삼단팔각 연화대좌의 통일신라 수용과 전개」, 『신라문화』 38(2011), pp. 279-306.

⁴ 지금의 보호각은 전두환 前대통령때 만들었다고 전한다.



도 1 청와대 불상 전경(문화재청)



도 2 청와대 불상, 불상 높이 108cm,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1 청와대 (문화재청)

귀볼, 왼손 검지 끝이 약간 손상된 것을 제외하고는 온전하다. 특히 얼굴은 눈동자뿐만 아니라 코와 입모양이 그대로 살아있어 통일기 신라 불상 가운데 귀중한 예이다.

이 석불상은 전체적으로 양감이 풍부하다. 얼굴, 어깨, 가슴, 양 무릎, 그리고 항마촉지인을 한 오른손에 이르기까지 두툼하게 표현하였다. 굽은 나발이 덮인 정수리 위에는 육계가 나지막하며, 좁은 이마에 백호공이 뚫려 있다(도 3).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뚫어 불상에 입체감을 더했다. 편단우견의 가사에 층단식 옷 주름은 정연하게 조각됐는데, 왼팔과 왼 무릎 위의 긴 물방울 모양 주름은 이 석불이 지닌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왼쪽 어깨 뒤로 넘어간 가사자락은 엉덩이까지 길게 늘어졌다(도 4). 오른손은 손가락을 가지런히 펴 오른 무릎 위에 올렸다. 결가부좌한 발목 앞에는 군의 끝자락이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져 있는데, 군의 자락을 불신과 함께 조각하지 않고, 대좌 상대 위에 별도로 새겨두었다(도 5). 대좌에 새겨진 부채꼴 모양 옷자락에 맞추어 불상을 안치하면 상의 뒤쪽으로 27cm 가량 공간이 확보되는데, 광배를 두었던 자리이다. 조성 당시에 석조 광배가 있었겠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

이 불상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사각형 대좌이다. 지금은 사각형의 상대만 불상을 받치고 있지만, 원래는 그 아래로 사각기둥 모양의 중대와 연꽃으로 장식된 사각형 하대도 있었을 것이다. 즉 상, 중, 하대가 모두 사각인 삼단사각대좌였겠지만, 지금은 상대만 남아있다.

보호각 옆에 놓인 둥근 돌에 새긴 안내문에는 이 불상이 “원래 경주 남산에 있던 것을 일제 때



도 3 청와대 불상 얼굴(문화재청)



도 4 청와대 불상 뒷면(문화재청)



도 5 청와대 불상 세부(문화재청)

옮겨온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⁵ 안내문의 설명처럼 이 불상은 원래 경주 남산에 있던 것인가? 원봉 안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이 불상이 이곳 청와대로 옮겨오게 된 내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⁵ 안내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석조여래좌상(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4호) “이 석가모니 좌상은 8세기 통일신라시대의 석불로서 목에는 석줄의 삼도가 있고 옷은 편단우견을 하였으며, 손은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어 석굴암 본존불과 같은 양식이며, 원래 경주 남산에 있던 것을 일제 때 옮겨온 것이다.”

이 불상이 등장하는 가장 이른 자료는 1917년 3월에 간행된 『조선고적도보』 권5이다. 이 책의 582쪽에 두 장의 사진(도 1919와 1920)이 나란히 실려 있는데, 사진 오른쪽(사진1919)은 ‘경주 남산 석조여래좌상’, 왼쪽(사진1920)은 ‘경주석조여래좌상(총독관저 안치)’라고 적고 있다(도 6).⁶ 사진1920의 설명에 ‘총독관저 안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1917년 『조선고적도보』 제5권이 출간될 당시 이 불상은 이미 서울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 같은 해 발간된 『조선고적도보』 해설 편에도 “경주 모처에 있던 것으로 지금은 옮겨져 총독부관저에 있다. 양식, 수법 역시 우수한 작품이라고 부르기에 적합하다”라고 적어 원봉안처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⁷

사진1920과 나란히 실린 사진1919, 그리고 그 앞 쪽의 사진1917, 1918은 모두 경주 남산 삼릉계의 사진이다(도 6).⁸ 『조선고적도보』에 실린 청와대 불상의 사진이 남산 삼릉계의 불상과 함께 게재되어 있다는 점이 원봉안처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될지는 좀 더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사진1920을 촬영한 시점은 언제인가? 서울로 옮기기 전에 촬영했다면 이 불상의 원봉안처를 밝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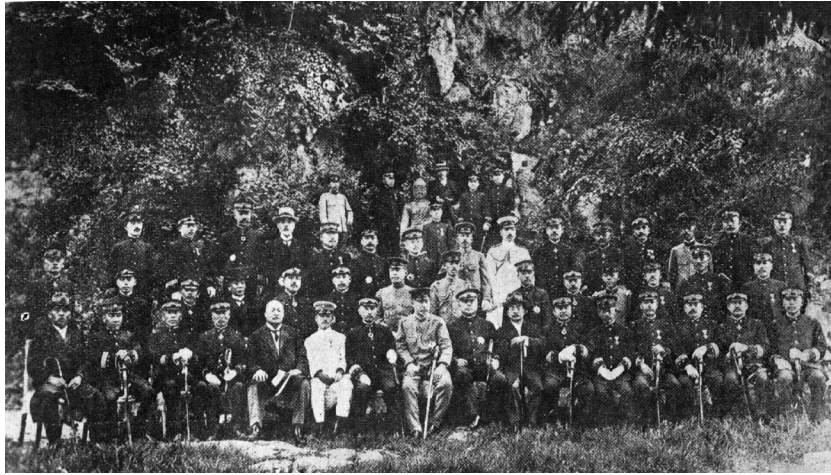


도 6 청와대불상(왼쪽)과 경주 남산 삼릉계 석불좌상(『朝鮮古蹟圖譜』卷5, 1917, 圖1919, 1920)

⁶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卷第5(東京: 朝鮮總督府, 1919), 번호 582-1920.

⁷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解説』5, 1917, p. 18.

⁸ 사진1917, 1918은 바로 경주 남산 삼릉계에서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옮겨온 약사불좌상이며, 사진1919은 역시 같은 삼릉계의 최근 얼굴을 보수한 석불좌상이다.



도 7 조선총독부 지방관 회의 기념사진(뒷줄 중앙 청와대불상)〔京城府史〕3, pp.392-393)

는 단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선고적도보』 권5의 유물이 대체로 1909년에서 1912년에 촬영한 사진인 것을 감안하면, 사진1920이 서울로 옮기기 전의 사진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조선고적도보』 권5의 사진설명에 ‘총독관저 안치’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사진의 배경도 서울로 옮긴 후 조선총독부 관저에서 촬영한 지방관 회의의 기념사진(도 7) 배경과 동일하여, 사진1920은 불상을 서울로 이운 후에 촬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후의 흔적은 17년 후인 1934년 3월 29일자 『매일신보』의 신문 기사를 통해서이다(도 8). “석가여래상의 미남석불, 櫛風浴雨 참아가며 총독관저 大樹下에 오래전 자취를 감초았던 경주의 보물 박물관에서 垂涎萬丈 큰 나무 아래 좌정했으나 비바람에 시달려”라는 제목으로 실린 기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석가여래상으로 경주 남산에 있던 미남석불이 지금으로부터 여러 해 전에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말았다. 그 얼마 후에야 미남석불이 어디로 도피한 줄을 안 총독부박물관에서는 그 동안 그의 간 곳을 찾아오다가 작27일에야 왜성대(倭城臺) 총독관저에 안치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비목(樾木) 촉탁⁹이 급히 달려가 보니 경관힐소(警官詰所) 뒤 언덕 큰 나무아래에 천연스럽게 좌정은 하고 있으나 비바람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⁹ 樾本の 오타로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촉탁이었던 樾本龜次郎를 일컫는다.

이 미남석불은 시가로 따진다면 적어도 오만원 이상은 할 것이나 지금 세상에 있어 돈아니라 금을 가지고도 도저히 살 수 없는 귀중한 것이니 좌신의 높이가 3척 6촌, 슬폭이 2척 9촌이요,¹⁰ 또 연좌대에는 천녀를 아로새긴 엄청난 것으로 신라의 유물로서 석불과 함께 다시 얻을 수 없는 귀중한 참고자료이다.

이에 대하여 총독부박물관에서는 “어떻게 되어서 그 미남석불이 총독관저에 안치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미 제1회 사이토[齋藤] 총독시대에 어떤 우연한 일로 관저로 올라온 듯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물관 홀에 진열되어 있는 약사여래와 경주의 같은 골짜기에 안치되어 있던 것인데 지금 풍우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애석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하고 말한다.

그리하여 박물관에서는 수연만장 어떻게 박물관으로 가져왔으면 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미 총독관저의 물건이 되어 있는 이상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형편이므로 총독의 허가를 얻어 박물관에 진열하여 보려고 희망하고 있는 중이라더라.



도 8 『매일신보』 1934년 3월 29일자 기사

위의 글은 『매일신보』의 기자가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촉탁이었던 가야모토 가메지로(樵本龜次郎)가 왜성대에 있는 석불좌상에 대해 한 이야기를 토대로 기사화한 것이다. 이 기사를 통해 새롭게 알려진 것은 ①1934년 이 불상이 왜성대 총독관저에 있었다는 점,¹¹ ②연좌대에 천녀가 조각되어 있다는 점, ③제1회 사이토 총독 당시 관저로 올라왔으며,¹² ④삼릉계에서 1915년 전시를

¹⁰ 좌신의 높이가 3척 6촌, 슬폭 2척 9촌 즉 109.1cm, 87.9cm라 했다. 이 수치는 청와대 불상의 실측치인 높이 108cm, 무릎 너비 86cm 거의 일치한다.
¹¹ 1927년 현재 청와대 자리에 경무대 총독관저 신축 후 신축관저로 석불좌상을 이운했다고 보기도 하지만(이규열, 『한국문화재수난사』 (돌베개, 2013), pp. 139-141; 정규홍, 『경북지역의 문화재 수난과 국외반출사』 (경상북도, 2013), pp. 659-664), 1934년 『매일신보』 기사에는 ‘왜성대 총독관저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경무대 총독관저의 신축이 1939년에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정황상 1939년 무렵 이 석불상을 옮겨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1927년은 총독 관저가 아니라 총독부가 이전한 때이다.
¹² 『매일신보』의 기자가 총독부박물관 소속의 가야모토의 이야기를 토대로 하고 있어 불상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지만, 불상이 서울로 옮겨진지 이미 20여년이 지난 후여서인지 오류도 있다. ③에서 齋藤實(재임: 1919.

위해 서울로 이운해 온 약사불과 같은 골짜기에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④의 내용은 이 불상의 원 봉안처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1934년에 쓰인 이 기사는 청와대 불상의 원봉안처와 관련한 가장 이른 기록이며, 일반인이 아닌 박물관의 전문위원 격인 가야모토의 전언에 의한 것이어서 매우 소중한 내용이지만, 서울로 옮겨간 지 이미 2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의 기억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남산 밑의 왜성대 총독관저에 있던 석불은 1939년 경무대 조선총독관저가 신축된 후 그리로 옮겨졌고, 다시 청와대 관저 인근으로 이운한 뒤 지금에 이른다.

한편, 이 기사에 실린 석불상의 사진에는 상대는 분명히 있지만, 그 밑으로 중대는 보이지 않는다. 대신 암석으로 보이는 부정형 모양이 상대 아래에 있다. 실제로 총독부 관저 현관 부근에서 찍은 지방관 회의 기념사진(도 7)에도 당시 석불상을 경사진 곳의 암석 상단에 봉안했던 것으로 보인다.¹³ 이 사진은 지방관 회의 당시 각도의 장관 및 주요 인물들이 도열해 찍은 사진인데, 맨 뒷줄의 중앙에서 불상 모습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매일신보』의 기사 속 사진은 1934년 석불상이 왜성대에 봉안되어 있었을 때 이미 중대는 함께 두지 않았음을 알려준다.¹⁴ 중대를 함께 두지는 않았지만, 중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연좌대는 천녀를 아로새긴 엄청난 것으로’라고 적고 있고,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1961년 신영훈 선생의 글에서도 청와대 불좌상의 중대를 ‘別置’해 두었다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⁵

세 번째 자료 역시 『매일신보』 1935년 8월 7일자 기사이다. “보존 지정받을 보물과 고적”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기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총독부에서는 9월 하순에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보존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되었
다함은 기보한바와 같거니와 이 회의에 자문을 하여 지정할 보물고적에 대하여 연구 중인데, 6
일 오전 10시부터 총독부사회과에서는 경성제대 후지타[藤田]교수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협의를
하였는데, 총독으로부터 자문하기로 된 것은 다음과 같다.

8. 13-1927. 12. 19)는 제1회가 아니라 제3회 총독이며, 불상을 경주에서 서울로 옮겨온 때는 제1회 총독을 지낸 寺內正毅(재임 1910. 10. 1-1916. 10. 14)때이다.

¹³ 京城府編, 『京城府史』第3卷(京城府, 1941), pp. 392-393사이의 사진. 정확히 언제 촬영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 사진이 1941년에 편찬된 『京城府史』에 수록되어 있음을 알려준 민족문제연구소의 이순우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¹⁴ 짐작컨대 왜성대 총독관저 현관 옆 암석 위에 봉안하면서 하대없이 상대와 중대만 함께 올려두기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때 이미 중대는 따로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¹⁵ 신영훈, 「靑瓦臺石造釋迦如來坐像」, 『미술사학연구(구 고고미술)』 2-12 통권17(1961), pp. 186-187.

보물 신라석탑(기보경성에서고물상에게 방해하러다가 발각되어 가지정된 것)

총독관저내의 석불

조선호텔안에 있는 원구단

해인사삼층석탑

(이하 생략)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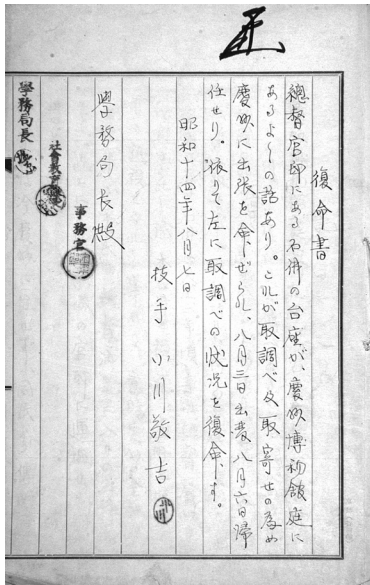
위의 기사는 보물지정을 위해 총독관저 안의 석불에 대한 연구를 경성제대 후지타(藤田)교수와 협의했다는 내용이다. 경성제대 후지타교수는 이 후 조선총독부박물관 관장을 역임(1923-1941)했던 고고학자 후지타 료사쿠(藤田 亮作, 1892~1960)를 일컫는다.¹⁷ 당시 어떤 연구를 했는지, 연구결과 보물로 지정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네 번째는 1939년의 공문서이다. 연구의뢰를 받고 4년 후 박물관 후지타 관장은 청와대 불상의 하대석 행방을 찾기 위해 경주에 사람을 보낸다. 총독부박물관의 오가와 케이키치(小川敬吉, 1882~1950, 박물관 근무: 1916~1944)가 경주에 다녀와 1939년 8월 7일에 올린 복명서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도 9).

[복명서]

총독 관저에 있는 석불의 대좌가 경주박물관 정원에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이를 조사하고 가져오기 위하여 경주에 출장을 명받고 8월 3일 출발하여 8월 6일에 돌아왔다. 따라서 아래에 조사 상황을 복명한다.

技手¹⁸ 오가와 케이키치[小川敬吉]



도 9 오가와 케이키치 복명서, 1939년 8월 7일 (黃壽永 編, 考古美術資料 第22輯 『日帝期文化財被害資料』, 1973)

¹⁶ 『매일신보』 1935년 8월 7일자 기사.

¹⁷ 후지타 료사쿠는 1923년부터 1941년까지 조선총독부 박물관장을, 1926년부터 1945년까지 경성제국대학 사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청와대 불상의 연구를 협의했던 1935년 당시 후지타는 조선총독부 박물관장이면서 동시에 경성제대 교수였다.

¹⁸ 옛 관제에서, 技師 아래 속하던 기술 관리의 하나이다.

학무국장 귀하

1. 경주박물관 정원에 있는 석좌는 총독부 관저에 있는 석불의 대좌라고 전해졌으나, 조사 결과 그림과 같이 위가 등글고 아래가 팔각으로 소형이다. 석불과는 크기, 형식 등이 일치하지 않고 다른 것이다. 잘못 전해졌다고 생각된다.
2. 관저에 있는 석불은 다이쇼 2년(1913)경 데라우치[寺内] 총독이 경주를 순시하였을 당시, 이를 몇 번이고 자세하게 살펴본 일이 있다.¹⁹ 당시 경주 금융조합이사 고다이로 료조[小平 亮三]씨는 총독이 마음에 들어 한 석불로 생각하여 이를 경성 관저로 운반했다고 한다.
3. 고다이로씨는 현재 경주에 살고 있지 않으며 그에게 전해 들었다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 석불은 원래 경주군 내동면 도지리 유덕사지(有德寺址)에서 옮긴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좌를 찾기 위해 유덕사지에 대해 조사했으나 대좌는 보이지 않았고, 다만 논밭 안에 폐탑, 주춧돌 등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뿐이었다.
4. 그리고 이 석불에 적당한 대좌를 구하기 위해 다른 사지를 조사하였으나 적당한 불좌를 얻지 못했다.
5. 결론적으로 불좌가 경주박물관에 있다는 것은 잘못 전해진 것으로, 그곳에 있는 불좌는 다른 것이다. 이처럼 복명한다.²⁰

이 공문서는 청와대 불상과 관련하여 가장 상세한 자료이다. 이 기록을 통해 ①‘1913년 데라우치 총독이 경주를 순시하였을 당시’ 경주 금융조합이사 고다이로 료조(小平 亮三)가 소유하고 있던 불상을 서울로 옮겼고, ②경주박물관에 대좌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조사를 위해 1939년 8월 경주를 찾았고, ③조사하는 과정에서 원봉안처가 도지동 有德寺라는 말을 전해 듣고, 폐사지를 조사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는 내용이다.²¹

이 복명서에서 처음으로 석불좌상을 서울로 옮기게 된 이유가 밝혀졌다. “1913년 데라우치

¹⁹ 이 석불좌상이 고다이로 소유였으므로 데라우치가 불상을 살펴 본 장소가 그의 집 정원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 하기도 하지만(이구열, 앞의 책, p. 148), 데라우치가 불상을 본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이 복명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²⁰ 쇼와 14년(1939) 8월 7일 공문서 (황수영 편, 이양수·이소령 증보, 강희정·이기성 해제, 『일제기 문화재 피해자료』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4), p. 219).

²¹ 오가와와 복명서에는 사진과 불상의 드로잉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가 그린 청와대 불상의 드로잉 옆에 적어둔 문 구에는 “불좌는 상대편이며 중대와 하대를 잃었다”고 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왜성대에 이 석불좌상을 봉안했을 때부터 이미 중대는 함께 있지 않았으며, 오가와와는 별치된 중대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도 10).



도 10 북명서에 첨부된 오가와 게이키치의 드로잉 (『日帝时期文化財被害資料』, 1973)

가 경주를 순시했을 때 이 석불좌상을 자세하게 살펴보자 당시 경주 금용조합이사 고다이라는 총독이 마음에 들어 한 석불로 생각하여 이를 경성 관저로 운반했다”고 한다.²² 사실 이 기록에서는 이 석불좌상이 고다이라가 소유했던 것이라는 내용은 없다.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고다이라의 정원에서 석불을 보았다는 언급이 북명서에는 없지만, 고다이라가 서울로 운반했다고 적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석불상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은 틀림없다. 석불상의 소유자였던 고다이라는 불상뿐만 아니라 기와도 많이 수집했다. 『조선고적도보』 제3권과 제5권에 그가 소유한 기와의 사진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수만 163점에 달한다.²³ 분황사, 황룡사지, 사천왕사지, 창림사지 등지의 기와를 수집했는데, 수집 유물이 기와이기는 하지만 고다이라 료조는 산술적으로 가장 많은 숫자의 유물을 소유한 인물이기도 하다.

한편, 당시 데라우치의 순시는 11월 7일 오후부터 9일 오전까지 2박3일의 일정이었다. 첫날인 7일 오후에는 태종 무렬왕릉비, 봉덕사 신종 타종, 경주 군청, 재판소, 경찰서, 농산물진열소 등을 순시했기 때문에 일정이 매우 바빴다. 이 때 경주 읍내의 기관들을 순회했기 때문에 당시 경

²² 오가와네 데라우치 총독이 1913년에 경주를 방문했다고 적고 있지만, 사실은 1912년 11월 7일 오후부터 11월 9일 오전까지이다 (『매일신보』 1912년 11월 10, 13, 14일 기사).

²³ 『조선고적도보』 3권(1916년 3월 간행)에 6점, 『조선고적도보』 5권(1917년 3월 간행)에 157점의 고다이라 소장 기와 사진이 실려 있다(김상엽, 「경성의 미술시장과 일본인 수집가」,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7(2014), pp. 169-170).

주금용조합의 사무소와 조합이사장인 고다이라의 관저를 들러서 불상을 봤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경주금융조합을 비롯한 위의 기관들이 모두 경주 읍내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 기관을 순회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11월이라 6시전에는 순시를 마쳤을 것이다.²⁴ 다음날은 하루종일 불국사와 석굴암에서 시간을 보냈고, 마지막 날인 11월 9일에는 오후에는 경주를 떠났기 때문에 오전 시간에도 불상을 볼 시간은 있었다. 데라우치가 11월 7일 혹은 9일, 언제 불상을 봤던지 간에 그때가 11월이었기 때문에 불상을 서울로 옮겨간 때는 이듬해인 1913년일 가능성이 높다.

1939년 복명을 받았던 오가와와는 총독부박물관의 문화재조사관이자 건축기사였다. 1939년 경무대 총독관저가 완공되자, 남산 왜성대에서 경무대로 관저를 옮긴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관저를 이사하면서 현관 옆 공간에 봉안해 두었던 석불좌상도 함께 옮겼을 것이다. 짐작컨대 오가와가 경주로 하대석을 찾으러 간 때가 1939년 8월 3일이므로, 관저 이사와 함께 석불좌상을 옮길 계획이 이미 서있었고, 그런 이유로 불상을 서울로 옮긴지 햇수로 27년이나 지나서야 하대석을 찾아오라고 복명서를 내어 그를 파견했을 것이다.

오가와와 기록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청와대 불상의 원봉안처가 ‘도지동 유덕사’라는 언급이다. 5년 전 『매일신보』 기사에 남산 삼릉계라고 적었던 것과 전혀 다른 ‘유덕사’라는 새로운 봉안처가 등장한 것이다. 오가와가 명을 받고 경주로 출발할 때만 해도 그는 원봉안처에 대한 정보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8월 3일에 출발해서 6일에 서울로 돌아왔으니, 4일과 5일, 이들 동안 하대석을 찾아다니다 (불상의) 원소유자였던 고다이라에게 전해 들었다는 그 누구인가에게 ‘도지동 유덕사에서 옮긴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5년 간격으로 두 기록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 원봉안처가 어디인지 더욱 혼란스러워 졌다. 결국은 1934년 총독부박물관 촉탁 가야모토의 이야기를 토대로 『매일신보』 기사가 쓴 글과 1939년 총독부박물관 문화재조사관인 오가와가 경주에서 전해들은 이야기, 이 두 기록 가운데 어느 글을 보다 더 신뢰할 수 있을지가 문제이다. 두 기록 모두 총독부박물관 관계자들이라는 점에서 전문성을 지녔겠지만, 문제는 불상이 서울로 옮겨진지 20년도 더 지난 후의 기억이라는 점이다. 1934년 『매일신보』 기사도 불상을 서울로 옮긴 때가 데라우치 때인데, ‘제1회 사이토(齋藤) 총독시대’라고 적고 있어 오류가 있고, 1913년부터 왜성대 총독관저에 줄곧 있었는데, 이를 두고 ‘지금으로부터 여러 해 전에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말았었다.’라고 적고 있는 것도 이 기사를 온전히 믿기 어렵게 한다. 오가와와 복명서도 마

²⁴ 읍내의 각 기관들은 朝鮮總督府, 『生活狀態調査』 7 慶州郡, 調査資料 第40輯(朝鮮總督府, 1934)의 부록 사진을 참조하기 바란다.

찬가지이다. 1939년의 8월 3일부터 3박4일 동안 경주 일대를 돌아다니며 청와대 석불좌상 하대를 수소문했지만, 이미 불상을 서울로 옮겨간 지 햇수로 27년이 지난 후여서 그가 동네사람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는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오가와와는 불상의 대좌를 찾기 위해 경주박물관, 도지동 일대를 탐문하며 조사했지만, 결국 원하던 하대석을 찾지 못했다.

청와대 불상의 대좌는 처음부터 상중하대가 완전체를 이룬 상태가 아니라 하대는 제외하고, 상대와 중대만 서울로 옮겨갔다. 이는 고다이리카가 이 불상을 소유하고 있을 때부터 이미 하대석은 없었거나 파손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처음부터 하대석이 완전했다면 함께 두지 않았을 리가 없고, 또 서울로 옮길 때 함께 가져가지 않았을 리가 없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앞서의 4개 기록을 통해 알려진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912년 테라우치가 경주 순시 중에 고다이리카 료조 소유의 석불좌상을 봄.
2. 1912-1913년 무렵 석불좌상이 서울로 옮겨짐.
3. 석불상을 1934년 기록에는 경주 남산 삼릉계에서, 1939년 기록에는 경주 도지동 유덕사에서 옮겨왔다고 적고 있음.
4. 석불좌상의 중대는 상대와 함께 서울로 옮겨왔음.
5. 하대석을 찾기 위해 오가와를 경주로 보냈으나 찾지 못함.

1939년 복명서 이후의 일제강점기 자료는 더 이상 알려진 기록이 없다. 위의 1-5 가운데 1, 2, 4, 5는 큰 오차가 없지만, 가장 큰 문제는 원봉안처와 관련한 내용 3이다. 일제강점기 자료를 통해 원봉안처는 일단 경주 남산과 도지동, 이 두 곳으로 좁혀졌다.

오가와와는 도지동의 유덕사를 언급했지만, 이는 정황상 도지동의 有德寺가 아니라 移車寺라고 보기도 한다.²⁵ 왜냐하면 『삼국유사』에 신라의 각간인 최유덕이 자기 집을 희사하여 사찰을 만들고 이름을 유덕사라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²⁶ 신라의 진골귀족 만이 오를 수 있던 태대각간에 당시 최씨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유덕사는 고려시대의 사찰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

²⁵ 이근직, 『경주의 문화유산』, 1998, p. 129. 이 문헌은 출간된 책이 아니라 강의용 교재로 제작된 것이다.

²⁶ 『三國遺事』 卷第3 塔像 편에 '有德寺'라는 제목으로 수록된 이야기에 보인다. 이에 의하면 "신라의 大夫이자 角干인 崔有德이 자기집을 내놓아 절을 만들고 그 이름을 有德寺라 했다. 그의 먼 후손인 三韓功臣 최언위가 有德의 眞影을 여기에 걸어 모시고 또 비도 세웠다고 한다"고 했다; "지금은 그 절과 비의 소재가 不明하며, 그 興廢연대도 미상함"(경주시사편찬위원회 편, 『慶州市誌』(경주시, 1971), p. 702).

때문이다.²⁷ 그렇기 때문에 도지동의 유덕사는 아니며, 이거사일 것이라고 본 것이다. 한편 연구자에 따라 이거사와 유덕사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데, 이거사를 유덕사의 전신으로 보기도 하고,²⁸ 혹은 도지동에 서로 인접해 있는 각기 다른 사찰로 보기도 한다. 이거사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 이외에는 사찰의 내력을 알려주는 자료는 없지만,²⁹ 절터에서 “車寺”명 기와들이 출토되어 사명의 파악에 도움을 준다.³⁰ 현재 이거사지에는 석탑의 부재가 흩어져 있다(도 11).³¹



도 11 도지동 이거사지 전경, 2010년 10월 촬영 (김동하)

북명서가 제출된 지 20여년 후인 1961년, 신영훈 선생은 청와대 불상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한다. 석불상과 관련한 다섯 번째 기록이다.

²⁷ 이근직, 앞의 책, p. 129.

²⁸ 移車寺는 『삼국사기』 기사가 있어서 내동면 도지리의 탑석, 석불 등이 유존하는 사지로 추정한다. 다만 동네주민은 절터 뒤편의 산을 有德山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이 절터를 有德寺라고 한다(大坂金太郎, 『慶州に於ける新羅廢寺址の寺名推定に就て』, 『朝鮮』 1931-10(1931), p. 82); “유덕사는 원래 이거사라 부르다가 유덕사로 고쳤다. 이 절의 3층석탑 옥개석 1매는 경주역에 있는 3층석탑 부재로 쓰였고, 사지에는 탑재와 불상 1구가 남아 있었다”(경주시 사편찬위원회, 『慶州市史』 Ⅲ(경주시, 2006), p. 335).

²⁹ 이거사는 성덕왕릉 북쪽에 자리잡고 있다. 이 사찰의 존재는 삼국사기 신라본기 성덕왕 시대 기록에도 보인다. 이에 의하면 성덕왕이 재위 35년(736)만에 죽자 “시호를 聖德이라 하고 移車寺 남쪽에 장사지냈다”고 한다. 『三國史記』에 성덕왕릉의 위치를 언급하면서 ‘移車寺 南’이라고 한 점(“王薨 諡曰聖德 葬移車寺南” 『三國史記』, 卷第8, 新羅本紀 第8, 聖德王 26年條.) 현재 탑이 남아 있는 사지가 移車寺일 가능성이 크다. 창건과 관련하여 이거사를 성덕왕의 陵寺로 본다면, 성덕왕의 승하 이후 창건되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경덕왕13년(754)에 부왕인 성덕왕의 비가 세워지는데, 移車寺의 창건 시점은 754년 이후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신용철, 『경주지역 폐사지 석조문화재 연구』(경주시·경주대학교, 2010), pp. 133-135).

³⁰ 신용철, 위의 책, p. 134. ‘거사’명 기와가 출토되었다고 적고 있지만, 언제 발견되었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다.

³¹ 移車寺는 1931년 大坂金太郎가 조사했을 당시 이미 폐사지였다. 당시 오사카 키타로는 폐사지의 탑지에 탑의 기단과 탑신 3매, 옥개석 3매가 있으며 서쪽 계곡에 불상 1구와 동쪽 民家에 불상 1구가 있다고 소개했다(慶州古蹟保存會, 第17號 『移車寺址』, 『慶州古蹟及遺物調査書-內東面』(朝鮮總督府, 1925), p. 31). 이들 가운데 서쪽 계곡의 불상은 현재 현장에 있는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며, 동쪽 민가에 있었다는 불상은 머리가 없다고 했으니 두 상 모두 청와대 불상과는 무관하다; 1963년 불국사역 앞에 삼층석탑을 재건하면서 이거사에 있던 탑재들을 옮겨 사용하고 일부는 도난당하기도 하여 현재 이거사지에는 석탑의 기단부와 옥개석 일부만 남아 있다.

“寺內총독에 의하여 경주에서 왜성대로 옮겨졌던 이 불상은 그 후 청와대로 이치되었던 모양으로 지금은 침류각 후면 샹터 위에 놓여 있는데 이미 조선고적도보 권5에 (도판 1920 경주석조석가여래상) 보도 되어 있다. 이 사진은 방형대좌의 상단 일부 이상만 보이고 있으나 실상은 대좌 간석을 구비하고 있어 간략히 현상을 소개해 두려 한다. (중략) 별치한 간석사면에 석굴암의 것과 같은 모양의 안상이 있어서 흥미롭다. 안상 안에는 사천왕상을 부조하였는 바 그 갑주 등은 護床石에서 보는 바와 같다. 하대석은 지금 결하고 있으나 최남주씨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경주 모처에 유존하고 있고 하니 완비되는 날이면 신라통일기 작품으로는 가장 완전한 것에 속하는 귀중한 것으로 생각된다.”³²

신영훈 선생은 이 불상의 중대에 관해 비교적 소상히 기술하고 있다.³³ 특히 당시 상대석과 중대석을 분리해 두었음을 언급하고, 이 불상의 하대석이 석당 최남주 선생의 전언에 의하면 ‘경주 모처’에 있다고 전했다.³⁴ 1961년에 하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면 왜 1913년 서울로 옮길 때 함께 가져가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당시 최남주 선생이 하대석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로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전해들은 것인지, 혹은 이 불상이 원래 있었던 장소는 밝히기 곤란한 사연이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다. 신영훈 선생은 이 글에서 중대의 사진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안상 안에 사천왕상을 부조했다고 언급하고 있고, 또 그 크기도 자세히 제시하고 있어 많은 도움을 준다. 최근 필자가 국립춘천박물관에서 확인한 청와대석불좌상 중대와 신영훈 선생의 실측치와 크기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 청와대석불좌상의 중대임을 입증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한다.

이 후 여섯 번째 자료가 바로 이 석불좌상의 지정을 위한 보고서이다. 1974년 1월 10일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는데, 지정을 위한 조사자였던 李瑞求 선생은 이 석불좌상에 관해 다음과 같이 간략히 보고하고 있다.

석불좌상 높이 1.3m, 둘레 1m

관리인 : 청와대

유래 : “연대미상이나 위 위치가 신라시대 寺址地이었으며, 고려시대는 渝富地로서 신라시대 제

³² 신영훈, 앞의 논문, pp. 186-187.

³³ 아쉽게도 이 글에 중대석의 사진은 제공되어 있지 않다(신영훈, 위의 논문, pp. 186-187).

³⁴ 최남주 선생이 남긴 기록들을 찾아보았으나, 청와대 불상 관련 내용은 찾지 못했다.

품으로 推想됨”

- 현황 : 1. 청와대 후측(본관 뒤) 침류각 후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석불 위에 함석지붕을 하고 있으며,
2. 주위는 입야지대로서 관리 상태는 극히 양호함.

1974년 지정 당시 높이가 1.3m라고 한 것을 보면 중대는 이 때 이미 함께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청와대 불상은 상 높이가 108cm, 상대 높이가 22.5cm여서 이 둘을 합한 수치가 1.3m이기 때문이다. 이후 청와대 불상은 크고 작은 사건으로 세간에 오르내렸고, 관심 있는 연구자들이 몇 편의 관련 글을 남겼다.³⁵

현재 청와대 불상은 광배를 잃었고, 대좌는 상대만 남아있다. 최근 청와대 불상의 조사 과정에서,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이 불좌상의 잃어버린 중대를 찾을 수 있었다(도 12의 왼쪽). 윗면이 크기가 57×56cm인 이 중대석의 네 면에는 안상 안에 각 1구씩의 신장상이 부조되어 있다. 이 중대석은 신영훈 선생이 제시한 중대 실측치와 1~2cm 오차 범위 내에서 일치하고 있어, 원래 청와대 불상의 중대였음을 입증해 준다.³⁶ 이 중대석의 네 면에는 안상 안에 신장상이 각 면에 1구씩 부조되어 있는데, 앞서 1934년 『매일신보』 기사에서는 天女像이라고 적고 있어 차이가 있지만, 짐작컨대 신장상의 양 옆으로 긴 띠가 훑날리고 있어 이를 천녀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영훈 척도 ³⁷	실제척도	현재 위치
불신+상대+중대	166cm	165.5cm	청와대+춘천박물관
불상 높이	106.6cm	108cm	청와대 경내
어깨너비	57.5cm	54.5cm	청와대 경내
무릎너비	84.8cm	86cm	청와대 경내

³⁵ 이규열, 앞의 책, pp. 139-141; 정규홍, 앞의 책, pp. 659-664; 이순우, 『통감관저, 잊혀진 경술국치의 현장 -일그러진 근대 역사의 흔적을 뒤지다』 (하늘재, 2010), pp. 101-109.

³⁶ 불상은 불화와 달리 재는 사람에 따라 1-2cm 가량의 오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현재 K-20으로 분류된 국립춘천박물관의 중대석은 국립중앙박물관 기록에 의하면 2002년 국립춘천박물관이 개관하면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곳으로 옮겨진 것으로, 특별한 소장 정보없이 오랫동안 기타 자료로 보관되어 왔던 것이다. 2003년 활용을 목적으로 K-20으로 가등록하였다. 관련 정보를 확인해 준 국립춘천박물관 김상태 관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전한다.

³⁷ 신영훈, 앞의 논문, pp. 186-187을 토대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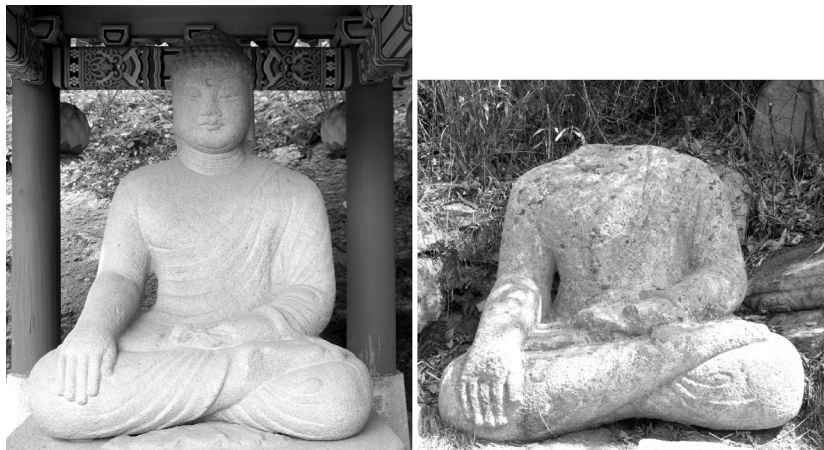
³⁸ 신영훈 선생은 간석(중대) 높이 1.0척(30.3cm)이라고 적었지만, 간석까지 합한 전체 높이는 5.48척(166cm)라고 기록했다. 전체 높이인 166cm에서 불상높이와 상대 높이를 빼면 30.3cm가 아니라 34.8cm이다(신영훈, 앞의 논문, pp. 186-187). 국립춘천박물관에서 발견된 중대 높이가 35cm이므로 이 글에서는 34.8cm를 따른다.

상대 높이	23.6cm	22.5cm	청와대 경내
중대 높이	34.8cm ³⁸	35cm	국립춘천박물관
중대 너비	54.5cm	56×57cm	국립춘천박물관



도 12 청와대 불상의 중대석, 국립춘천박물관(왼쪽), 유리건판사진(오른쪽) (左임영애, 右국립중앙박물관, 『유리원판 목록집 Ⅲ』, 1999, p. 258)

일제강점기에 촬영한 유리건판 사진에서도 이 중대석을 확인할 수 있었다(도 12의 오른쪽). 사진 설명에는 ‘415-4 신장상, 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경복궁’이라고 적고 있어 청와대 불상의 중대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하대석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와 중대만 두고 석불좌상을 그 위에 봉안하기는 불안정했기 때문에 중대석을 따로 두었던 것이 결국 함께하지 못하게 된 이유일 것이다. 2002년 국립춘천박물관을 개관하면서 이 중대는 서울에서 다시 춘천으로 옮겨져 지금에 이른다.



도 13 청와대 불상(왼쪽)과 경주 남산 약수계 불상(오른쪽)(左문화재청, 右임영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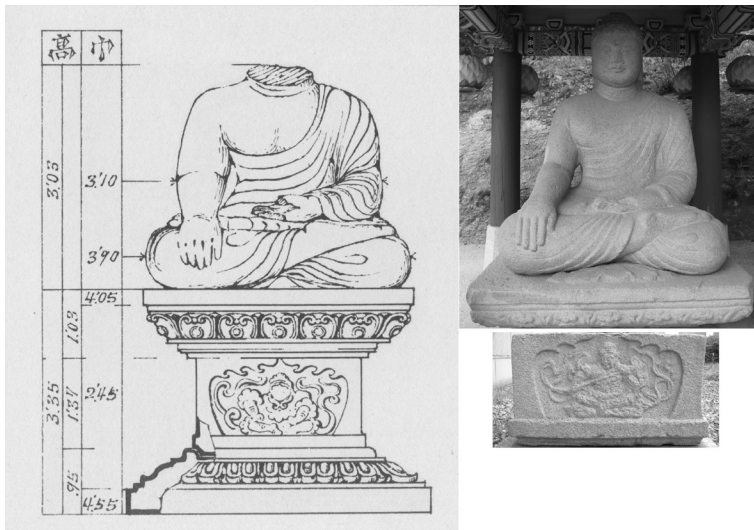
흥미롭게도 청와대 불상과 거의 쌍둥이처럼 똑같은 상이 경주 남산 약수계에 있다(도 13). 약수계 상은 머리를 잃었고, 각 부재는 도괴되어 흩어져 있다(도 14). 약수계 상은 잃어버린 머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같은 조각가에 의해 제작된 것처럼 거의 같다. 특히 청와대 불상의 특징인 왼팔과 왼 무릎 위의 긴 물방울 모양의 옷주름, 사각형 대좌, 상대의 연꽃 문양, 중대의 신장상에 이르기까지 흡사하다(도 15-17). 다



도 14 경주 남산 약수계 불상(입영에)

만 크기는 약수계의 상이 전체적으로 약간 크다. 유사한 불상은 남산에 또 있다. 용장계 절골 약사불좌상인데, 역시 삼단사각대좌이며, 중대 네 면에 신장상이 있다(도 18). 양조암곡 제1사지의 석불좌상 역시 불상은 깨어졌고, 대좌도 일부만 남아있지만, 삼단사각대좌임은 확인된 상태이다.

청와대 불상과 경주 남산 약수계의 불상은 쌍둥이처럼 닮았기 때문에 두 불상의 조각가 집단이 같았을 것이라고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 불상의 원봉안처가 경주 남산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같은 장소에서 같이 만들었지만 서로 다른 곳에 봉안할 수도 있



도 15 경주 남산 약수계 불상 드로잉(왼쪽)과 청와대 불상(오른쪽) (드로잉 朝鮮總督府, 『慶州南山の佛蹟』(京都: 桑名文星堂, 1941, 圖版 第55, 右문화재청)



도 16 왼쪽 무릎 부분, 청와대 불상(왼쪽)과 경주 남산 약수계 불상(오른쪽)(左문화재청, 右임영에)



도 17 대좌의 상대 부분, 청와대 불상(위)과 경주 남산 약수계 불상(아래)(上문화재청, 下임영에)

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산 창림사지에도 동일한 2구의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있었고, 또 불국사에도 같은 양식, 같은 크기의 금동아미타불좌상과 금동비로자나불좌상이 있다. 봉화 동방사지에서 부석사 지인당으로 옮겨온 동일한 2구의 석조비로자나불좌상도 있으며, 또 해인사에도 쌍둥이 비로자나불상이 있다. 같은 양식, 크기의 상을 조성한 경우 대체로 한 사찰에 있었던 점을 상기하면, 경주 남산에 서로 닮은 2구의 불상이 함께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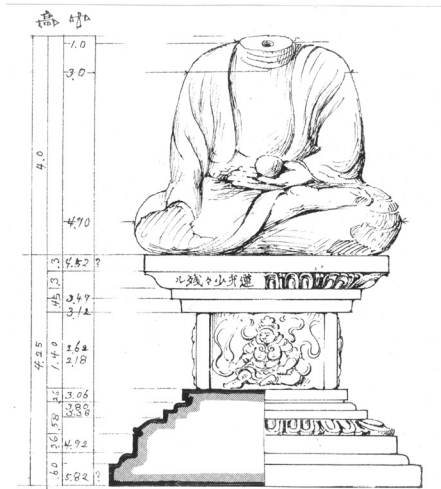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현재 남아있는 자료만 두고 청와대 불상의 원봉안처가 경주 남산인지, 도지동 이거사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불상을 서울로 옮긴지 20년 지난 후의 두 기록이 서로 다른 내용을 말하기 때문이다. 다만 오사카 긴타로가 1916년 이후의 경주지역 문화재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 둔 『慶州古蹟及遺物調書』의 移車寺址에는 이곳에 있던 불상을 서울로 옮겼다

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둘 필요가 있다.³⁹ 같은 책에 비슷한 시기에 서울로 옮긴 경주 남산의 삼릉계 역사불좌상과 감산사 불상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운을 명시해 두었음을 상기하면, 적어도 이 책이 발간된 1931년까지 청와대 불상의 원봉안처를 이거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Ⅲ. ‘청와대 불상’의 삼단사각대좌

청와대 불상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삼단사각대좌 위에 봉안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한 단의 장방형 대좌는 이른 시기부터 등장하지만, 이 글에서 일컫는 삼단사각대좌는 상, 중, 하 대가 모두 사각이며, 이들이 중첩되어 삼단을 이룬 경우를 말한다.⁴⁰ 대략 통일기 신라 하대 무렵에 시작하여 고려 전기까지 꾸준히 애용되던 형식의 대좌이다. 불상의 양식으로 판단하면 통일기 신라 하대에 삼단사각대좌의 시작을 알려주는 예가 바로 청와대 불상과 경주 남산의 불상들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주 남산에는 삼단사각대좌를 지닌 불좌상만 3구가 남아있다. 약수계 석조불좌상, 용장계 절골의 석조약사불좌상(도 18), 그리고 양조암계 제1사지 석조불좌상인데, 모두 머리를 잃었다.⁴¹ 이들 3구 가운데 완전한 예는 없지만, 일제강점기의 도면이 남아있어 적어도 도상과 형식을 알아보는 어렵지 않다. 흥미롭게도 이들 삼단사각대좌의 불좌상은 모두 중대에 신장상이 부조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 안



도 18 경주 남산 용장계 절골 석조약사불좌상 실측 도면(『慶州南山의佛蹟』, 圖版 第61)

³⁹ 慶州古蹟保存會, 앞의 책, pp.30-31; 『慶州古蹟及遺物調書』에 관한 보다 소상한 기록은 다음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김동하, 「일제강점기 경주지역 불교유적조사와 경주고적보존회의 『慶州古蹟及遺物調書』, 『불교미술학』 15(2013), pp. 205-233.

⁴⁰ 국립청주박물관 계유명 불비상의 경우 상현좌 아래로 사각대좌의 하대 복련이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글에서 일컫는 삼단사각대좌로 보기는 어렵다.

⁴¹ 용장계 절골의 석조약사불좌상 역시 머리를 잃었고, 현재 중대는 땅속에 묻혀 있어 실물을 확인할 수 없다.

상 안에 신장상을 두기도 하지만, 안상없이 우주를 모각하고 신장상을 새기기도 했다. 안상의 유무를 떠나 이들 신장상은 같은 형식 및 양식 특징을 지녔다. 우선 부조의 높이가 매우 낮으며, 발목을 교차하거나 양 다리를 적당히 벌려 앉았다. 모두 갑옷을 입었고, 양 허리에서 나온 천의자락이 몸의 좌우에서 훑날린다.⁴² 안상의 모양도 윗부분은 맞닿아 있고, 아래가 트여있어 유사하다. 물론 대좌 하대 받침에 안상을 조각한 경우는 꽤 일찍부터 나오지만, 중대에 신장상과 함께 새긴 경우는 매우 드물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청와대 불상 역시 같은 형식인데 중대 네 면에 안상을 마련하고 그 안에 신장상을 조각하고 있어 동일하다. 이러한 형식의 삼단사각대좌는 경주 남산 이외의 지역에서는 아직 발견된 바 없다.⁴³ 같은 삼단사각대좌 형식이라도 대부분 9세기 합천 청량사 석조불좌상처럼 중대에 공양보살상이 조각되거나, 중대에 아무런 문양 없이 우주만 모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려시대가 되면 훨씬 더 수의 많은 삼단사각대좌의 불좌상이 조성된다. 예컨대 장곡사 철조약사불좌상, 예천 청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달성 유가사 석조불좌상, 용운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함양 교산리 석불좌상이 있고, 대좌만 남아있는 여주 고달사지, 성주사지 석조대좌 등이 있다(도 19). 이들 고려 전기의 삼단사각대좌 중대에는 역시 안상만 있거나, 혹은 공양보살



도 19 삼단사각대좌, 고려 전기, 경기도 여주 고달사지(임영애)

⁴² 이 부조상을 두고 『매일신보』 기사에서는 ‘천녀상’이라 불렀고(『매일신보』 1934년 3월 29일자 기사). 신영훈 선생은 ‘사천왕상’이라 했다(신영훈, 앞의 논문, p. 186).

⁴³ 사각 중대 네 면에 신장상이 새겨진 형식의 대좌가 왜 경주 남산에서만 발견되는지에 관한 문제 역시 이 글에서 밝혀야하지만, 남아있는 통일기 신라의 불상만으로는 그 답을 찾기는 어렵다. 별도의 논고를 마련하여 중국의 예와 함께 살펴보고도록 하겠다.



도 20 신장상, 석등 팔각하대 부분, 傳경주 읍성지, 전체높이5m, 국립경주박물관(위), 영암사지 금당 내 수미단 기단의 신장상(아래) (임영애)



도 21 1층 탑신의 신장상, 남산 승소곡사지 삼층석탑, 9세기, 현재 국립경주박물관 야외전시장(『慶州南山の佛蹟』, 圖版 第101)

상이 조각되어 있으며, 신장상이 대좌 중대석에 조각된 예는 보지 못했다.

물론 중대는 아니지만, 안상 안에 신장상이 있는 예는 적지 않다. 국립경주박물관 석등 팔각하대석에도 있고, 영암사지 금당 기단에도 동일한 형식의 예가 있다(도 20). 동일한 형태의 안

상 안에 사천왕상이 조각된 예는 같은 경주 남산의 승소곡사지에서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온 삼층석탑 탑신에도 있다(도 21). 승소곡사지 삼층석탑은 탑의 형식으로 대략 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또 실상사 수철화상(秀澈和尚 817-893) 승탑 기단 부분에도 같은 모양의 안상 안 신장상이 있다(도 22).⁴⁴ 특히 실상사 수철화상 승탑의 신장상은 청와대 중대 신장상처럼 부조의 높이도 낮을 뿐만 아니라 갑옷의 형태, 앉은 자세도



도 22 승탑 기단 부분, 남원 실상사 수철화상 능가보월탑 (보물 제38호, 893년 이후) 승탑 (임영애)

⁴⁴ 보물 제38호인 이 승탑은 지정 명칭은 실상사 중각대사중각대사(?), 826년 귀국, 844-860 추정) 승탑이지만, 분석 결과 수철화상의 능가보월탑(893년 이후)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강삼혜, 「나말여초 僧塔塔身 神將像 연구」, 『미술사학연구』 252(2006), p.103). 이 글은 이를 따른다.

매우 흡사하다. 이처럼 안상 안의 신장상은 석등의 하대, 승탑의 하대 받침석이나 기단석 등에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청와대 불상이나 경주 남산의 예처럼 대좌 중대 네 면을 장식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⁴⁵

현재 통일기 신라 하대의 삼단사각대좌를 지닌 불좌상 가운데 절대 연대를 지닌 기준 작품은 없지만, 삼단사각대좌의 중대 신장상과 9세기 석탑의 탑신, 승탑의 신장상 부조와 긴밀성을 고려하면 청와대 불상 역시 9세기에 제작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불신의 양식으로 보면 당당한 어깨에 안정적인 신체비례를 하고 있어, 8세기 후반으로 제작시기를 올려 볼 수도 있겠지만, 다소 비만해진 신체와 양 발목 앞의 부채꼴 주름을 대좌 위에 조각한 점 등은 9세기 불상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또 고사리처럼 말린 상대의 연꽃 문양도 흔한 예는 아닌데, 실상사 백장암탑에서 같은 모양을 찾을 수 있어 9세기보다 앞선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청와대 불상의 내력에 보다 집중을 하다 보니 불상 양식과 삼단사각대좌의 분석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못했다. 특히 삼단사각대좌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고에서 보다 소상히 다룰 예정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적어도 통일기 신라 하대 삼단사각대좌는 남아있는 예가 드물고, 더욱이 중대에 신장상을 조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불상은 이후 고려 전기 삼단사각대좌의 유행을 예고하는 그 시작점에 있다는 점에서도 또 의미가 있다.

IV. 맺음말

이 글은 일제강점기 1913년 무렵 경주를 떠난 일명 ‘청와대 불상’이 서울로 오게 된 연유는 무엇이며, 청와대 관저 뒤쪽의 녹지원에 자리하게 되기까지 어떤 내력을 지녔는지 살펴보려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원래 어디에 봉안되어 있던 불상인지도 함께 알아보려 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원봉안처 문제였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원봉안처와 관련해서는 불상을 서울로 옮겨온 후 20년도 더 지난 1934년과 1939년의 기록만 남아있는데, 두개의 중요한 자료가 5년의 간격을 두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다.

⁴⁵ 창원 용화전 석조불좌상의 삼단사각대좌를 당대 보리서상 도상의 수용과 관련하여 보려는 시도도 있다(서지민, 「창원 용화전 석조불좌상의 도상적 고찰-당대 보리서상 도상과 관련하여」, 『불교미술사학』 22(2016), pp.57-95). 다만 항마축지인이 아닌 약사불좌상이나 비로나자불좌상이 삼단사각대좌를 취한 경우도 있어 이들에 대한 고려도 함께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청와대 불상은 경주 도지동의 이거사지가 원봉안처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남아있는 자료는 청와대 불상의 원봉안처가 이거사지라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 청와대 불상의 원봉안처와 관련해 가장 이른 기록인 1934년 『매일신보』 기사가 경주 남산이라고 못박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청와대 불상과 쌍둥이처럼 같은 불상이 경주 남산 약수계에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청와대 불상과 같은 형식의 삼단사각대좌 불상이 경주 남산에만 남아있는 것도 원봉안처가 도지동 이거사지라고 단언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 일제강점기 경주의 절터를 상세히 조사했던 오사카 긴타로도 『경주고적급유물조사』라는 보고서에서 ‘移車寺址’를 별도의 항목으로 다루었지만, 이곳에 있던 불상을 옮겼다는 언급이 전혀 없다. 같은 책에서 경주 남산의 삼릉계 약사불좌상과 감산사 불상이 서울로 옮겨간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히 적어두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사카 긴타로가 청와대 불상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청와대 불상의 원봉안처가 이거사지가 아닐 가능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편 1917년 『조선고적도보』 해설편에서는 청와대 불상을 ‘경주의 모처에 있던 불상’이라고 적었다. 1917년의 이 기록은 옮긴지 4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만, 원봉안처를 밝히지 않았다. 원봉안처를 정말 몰랐기 때문인지, 혹은 출처를 밝히기를 곤란한 사정이 있어 의도적으로 ‘모처’라고 적었는지는 알 수 없다. 불상을 소유하고 있던 고대이라 자신도 원봉안처가 알려지는 일을 꺼렸을 것이니 지금 남겨진 일제강점기의 자료를 통해 원봉안처를 밝히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청와대 불상은 아픈 기억이기는 하지만, 이 또한 하나의 역사이다. 아쉽게도 지금 남아있는 자료만으로 원봉안처가 어디인지를 명확히 밝히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지만, 청와대 불상은 현재 봉안되어 있는 장소도, 그 내력도, 또 통일기 신라 불상 가운데 매우 이례적인 삼단사각대좌를 지녔다는 점에서도 특별한 통일기 신라 9세기의 불상이다.

***주제어(key words)** 청와대(靑瓦臺, The Blue House), 데라우치(寺內正毅 Terauchi Masatake), 약수계 석조여래좌상 (seated stone Buddha statue in the Yaksu valley), 경주 남산(Namsan mountain in Gyeongju), 이거사(移車寺, Igeosa Igôsa Temple) 삼단사각대좌(three-step squared pedestal),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the Joseon)

■ 투고일 2017년 10월 10일 | 심사개시일 2017년 10월 11일 | 심사완료일 2017년 11월 2일 ■

참고문헌

1. 사료

『三國史記』, 卷第8, 新羅本紀 第8, 聖德王 26年.
『매일신보』 1912년 11월 10,13,14일, 1934년 3월 29일, 1935년 8월 7일 기사.

2. 한국어 문헌

강삼혜, 「나말여초 僧塔塔身 神將像 연구」, 『미술사학연구』 252, 2006
경주시·경주대학교, 『경주지역 폐사지 석조문화재 연구』, 2010.
경주시사편찬위원회 편, 『慶州市誌』, 경주시, 1971.
경주시사편찬위원회, 『慶州市史』 Ⅲ, 경주시, 2006.
김동하, 「일제강점기 경주지역 불교유적조사와 경주고적보존회의 『慶州古蹟及遺物調査』」, 『불교미술사학』 15, 2013.
김상엽, 「경성의 미술시장과 일본인 수집가」,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7, 2014.
서지민, 「창원 용화전 석조불좌상의 도상적 고찰 - 당대 보리서상 도상과 관련하여」, 『불교미술사학』 22, 2016.
신영훈, 「청와대 석조석가여래좌상」, 『미술사학연구(구 고고미술)』 2-12(통권 17), 1961.
이구열, 『한국문화재수난사』, 돌베개, 2013.
이순우, 『통감관저, 잊혀진 경술국치의 현장 - 일그러진 근대 역사의 흔적을 뒤지다』, 하늘재, 2010.
임영애, 「삼단팔각 연화대좌의 통일신라 수용과 전개」, 『신라문화』 38, 2011.
정규홍, 『경북지역의 문화재 수난과 국외반출사』, 경상북도, 2013.
황수영 편, 이양수·이소령 증보, 강희정·이기성 해제, 『일제기 문화재 피해자료』,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4.

3. 동양어 문헌

京城府 編, 『京城府史』 第3卷, 京城府, 1941.
慶州古蹟保存會, 『慶州古蹟及遺物調査書 內東面』, 朝鮮總督府, 1925.
大坂金太郎, 「慶州に於ける新羅廢寺址の寺名推定に就て」, 『朝鮮』 1931-10, 1931.
林玲愛, 「中国の三段八角台座に秘められた象徴 - 崑崙山, 須彌山, 三段台座 - 」, 『佛教藝術』 336, 2014.
朝鮮總督府, 『慶州南山の佛蹟』, 京都: 桑名文星堂, 1941.
『生活狀態調査』 7 慶州郡, 調査資料 第40輯, 1934.
『朝鮮古蹟圖譜』 卷第5, 東京: 朝鮮總督府, 1919.

국문초록

청와대 안에는 '미남불'이라 불리는 석불좌상이 있다. 현재 광배도 없고, 대좌도 일부를 잃었지만, 불신은 거의 손상된 곳 없이 완전하다. 잘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이 보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불상이 일제강점기인 1912-1913년 무렵 경주에서 서울로 옮겨와 현재 청와대에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 불좌상이 어떤 연유로 청와대에 위치하게 되었으며, 원래 경주의 어디에 봉안되어 있던 것인지, 그리고 이 불상의 제작 시기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려한다.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원봉안처 문제였다. 원봉안처에 관해 적고 있는 기록은 불상을 경주에서 서울로 옮겨온 후 20년도 더 지난 1934년과 1939년의 것뿐인데, 두개의 중요한 자료가 5년의 간격을 두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청와대 불상은 경주 도지동 移車寺址가 원봉안처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남아있는 자료는 청와대 불상의 원봉안처가 이거사지라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 청와대 불상의 원봉안처와 관련해 가장 이른 기록인 1934년 『매일신보』 기사가 경주 남산이라고 못 박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청와대 불상과 쌍둥이처럼 같은 불상이 경주 남산 약수계에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청와대 불상과 같은 형식의 삼단사각대좌 불상이 경주 남산에만 남아있는 것도 원봉안처가 도지동 이거사지라고 단언하기 어렵게 만든다.

한편 1917년 『조선고적도보』 해설편에서는 청와대 불상을 '경주의 모처에 있던 불상'이라고 적었다. 1917년의 이 기록은 옮긴지 4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만, 원봉안처를 밝히지 않았다. 원봉안처를 정말 몰랐기 때문인지, 혹은 출처를 밝히기를 곤란한 사유가 있어 의도적으로 '모처'라고 적었는지는 알 수 없다. 불상을 소유하고 있던 고다이아 료조[小平亮三] 자신도 원봉안처가 알려지는 일을 꺼렸을 것이니 지금 남겨진 일제강점기의 자료를 통해 원봉안처를 밝히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청와대 불상은 아픈 기억이기는 하지만, 이 또한 하나의 역사이다. 청와대 불상의 내력에 보다 집중을 하다 보니 삼단사각대좌의 분석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적어도 통일기 신라 하대 삼단사각대좌는 남아있는 예가 드물고, 더욱이 중대에 신장상을 조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는 것이다. 청와대 불상은 다소 비만해진 신체, 양 발목 앞의 부채꼴 옷 주름을 대좌 위에 조각한 점, 삼단사각대좌와 중대 신장상 형식을 통해 9세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고려 전기 삼단사각대좌의 유행을 예고하는 그 시작점에 있다는 점에서도 또 의미가 있다.

Abstract

History and Meaning of the So-called “Buddha Statue at the Blue House”

Lim, Young-ae*

Inside the Blue House in Seoul, there is the so-called “Handsome Buddha,” which is a seated stone statue. Even though a halo and part of the pedestal have been lost, the body of the statue is in almost perfect condition, without any damages. Apart from its good condition, the more interesting fact is that this statue was relocated here after being removed from Gyeongju in 1912–1913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This article explores why the statue was placed in the Blue House, where it would have been enshrined originally, and finally estimates its production period and meaning.

The most challenging issue was the original venue for the statue. The original location was only mentioned twice in the records, in 1934 and 1939, both of which were written more than 20 years after the statue was relocated in Seoul. What makes the situation worse is that these two records tell different stories. Nevertheless, the original venue is known to be the site of Igeosa Temple. However, the current records do not corroborate this. The earliest record regarding the original location is an article from Maeilshinbo in 1934, which strongly asserts that the statue was from Namsan Mountain, Gyeongju. This assertion was supported by an almost identical statue to the one in the Blue House, which remained in the Yaksu Valley of

* Gyeongju University

Namsan Mountain in Gyeongju. In addition, the article asserted that the same style of statue, with the three-step squared pedestal of the Blue House statue, is only found in the Namsan Mountain, Gyeongju, which makes it difficult to determine its original venue to be Igeosa Temple, Doji-Dong.

Meanwhile, Chōsen koseki zufu, in its commentary volume in 1917, vaguely mentions the statue at the Blue House as “a statue from somewhere in Gyeongju.” This is indeed an important record, because it was written only four years after the statue had been relocated. However, it did not mention its original location. It is not certain if the author of the record simply stated “somewhere” because he or she did not know the original provenance or because the author was forbidden to reveal it and so deliberately wrote “somewhere”. Kodaira Ryōzō (小平亮三) himself, who previously owned the statue, would have been reluctant to reveal the location, which makes it extremely difficult to find out the original venue based on these documents from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The Buddha statue itself in the Blue House is a painful memory, but at the same time, it is also a part of history. It is regrettable that I focused more on the history of the statue than on analyzing the three-step squared pedestal. Yet,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type of pedestal in the Unified Silla period is very rare, and it is even more difficult to find a case in which the guardian figures were carved on the middle step. I believe that the Buddha statue could have been produced in the ninth century based on the following features: voluminous body, wrinkles of drapery in the shape of a circular sector in front of the ankles carved on the pedestal, a three-step squared pedestal, and a formal style of guardian figures in the middle step. It is also a meaningful example in that it can be situated at the point in time at which the three-step squared pedestal became the fashion in the early Goryeo period.